

광주 도심 곳곳서 멧돼지 · 들개 활개...시민들 '불안'

용봉동 전남대 캠퍼서서 길고양이 사냥도 목격돼

인간의 개발행위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든 탓

광주 도심 곳곳에 멧돼지와 들개 등 야생동물이 출몰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에 들개 5마리가 누비고 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들개들이 교내에서 길고양이를 죽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 25일에는 광주 서구 매월동 제2순환도로에서도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멧돼지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실탄 10발을 쏘아 사살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따뜻한 기후와 낮은 적설량으로 멧돼지 생존율이 높아졌고 인간의 개발행위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든 것이 멧돼지 도심 출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야생동물학 교수는 "단순히 기후변화와 인간의 개발이 멧돼지 출몰의 이유라고 단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야생보다 잘 기른 농작물을 맛본 후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자주 내려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상태"라며 "버림 받은 동물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보다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만큼 반려동물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격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마주했을 때 침



지난 25일 광주 서구 매월동 제2순환도로에 출몰한 멧돼지



광주 전남대학교에 출몰한 들개들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신속한 신고와 안전한 장소 이동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집계한 동물 포획 건수는 2017년 5106건, 2018년 4554건, 2019년 3496건이다. 여기에는 개와 멧돼지, 고라니, 고양이, 뱀, 벌집제거 등이 포

획된 수이다. 개는 2017년 765건, 2018년 891건, 2019년 700건으로 포획됐으며, 뱀은 2017년 155건, 2018년 128건, 2019년 143건, 멧돼지는 2017년 25건, 2018년 15건, 2019년 12건으로 집계됐다.

조인호 기자

노사협력 공동선언 협약체결식 개최

한국노총목포지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는 29일 산하 5개조직을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각 사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사에는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이영춘 목포지역지부 의장과 임승래 사무국장, 한국노총 전남본부에서 최상순 사무국장 등 전남노사민정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선언식은 NH농협전남본부, 전남서부항운노조, CJ대한통운목포지부, 무안교통, 태원유진여

객 등 5개 사업장으로 선정된 회사에서 노사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고 노사대표가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순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는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갈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회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산하 모든 조직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춘 목포지역지부 의장은 "협약체결식을 계기로 노조가 회사 발전을 위한 한축이라는 점에서 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실리를 택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사대표는 이 행사를 계기로 고용환경 개선에 힘써 안전한 일터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이 없도록 각종 회의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신봉우 기자

완도군, 주민 체감할 수 있는 신규시책 발굴한다

해양치유산업 연계 등 2020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완도군이 내년도 신규시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신우철 군수와 간부 공무원, 시책 제안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654건의 제안 중 1차 심사를 거쳐 60건을 선정하였고,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2차 검토 후 민간 참여 평가 자문회의



를 거쳐 최종 25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해양치유 아카데미 교육 개설, ICT블루체험관 운영, 책 읽어주는 할머니 양성 교육, 군민과 소통하는 직소 민원실 운영, 한겨울 버스 승강장의 영프 의자 등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신우철 군수는 "신규 시책 보고회 때만 아니라 소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군정의 큰 발전을 가져 온다"며 "행식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나 긍정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도 응모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미래 산업이자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여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의 1번지,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 해양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제안된 신규시책에 대해 내년도 즉시 추진 할 사항과 중장기 사업 등을 검토한 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만의 갈대와 바람이 머무는 곳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2019.10.26.(토) - 11.3.(일)
강진만 생태공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 올해의 관광지 강진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일정표(10월26~11월 3일)

일시	10. 26.(토)	10. 27.(일)	10. 28.(월)	10. 29.(화)	10. 30.(수)	10. 31.(목)	11. 1.(금)	11. 2.(토)	11. 3.(일)
10:00-10:30									
10:30-11:00									
11:00-11:30		버스킹	버스킹	제4회 강진만 어업인 한마당 대회 (개막식)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11:30-12:00									
12:00-12:30									
12:30-13:00									
13:00-13:30									
13:30-14:00				어업인 한마당 잔치					
14:00-14:30		다같이 플래시몹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14:30-15:00									
15:00-15:30	개막행사								
15:30-16:00									
16:00-16:30		아랑고교장구 페스티벌	아랑이재 청춘콘서트 (노래자랑) 예선	아랑이재 청춘콘서트 (노래자랑) 예선	아랑이재 청춘콘서트 (노래자랑) 예선	아랑이재 청춘콘서트 (노래자랑) 예선			
16:30-17:00	개막축하공연 (이소렛 공연)								폐막행사
17:00-17:30					7080 가을음악회		아랑이재 청춘콘서트 (노래자랑) 결선	토요음악회	
17:30-18:00									
18:00-18:30	아간 레이저쇼						아간 레이저쇼	아간 레이저쇼	아간 레이저쇼

체험행사

- 임박의 학형시절
- 청춘사건관 운영(갈대밭 추억남기기)
- 핸드폰 갈대밭 필터포이즈(SNS 연계)
- 생태어촌농촌 맨손으로 집아라
- 내가 갈대 다트장인
- 추억의 오락실
- 추억의 놀이
- 갈대 페이스 페인팅
- 귀·갈 동물농장
- 오행시 짓기(춤추는갈대, 강진만갈대, 황금빛갈대)
- 갈대 밋자루 만들기 체험
- 갈대밭 한복체험
- 갈대밭 연날리기
-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 나만의 청자만들기(물레 성형체험)
- 갈대밭 가상현실(VR) 체험
- 맛의 1번지 맛보기 체험
- 민화와 함께하는 가을이끼

전시행사

- 국회 정원 조성
- 강진청자 전시 및 판매

기타행사

- 한방 건강검진 체험관
- 강진맛집(음식부스) 운영
- 찾아가는 추곡밀을 이동장터
- 의료 봉사반 · 무료 수유실 운영

연계행사

- 제1회 강진만 어업인 한마당 잔치
- 강진만 노동자 운영
- 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